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26, Vol. 40, No. 3, 251-271
https://doi.org/10.21193/kjspp.2026.40.3.001

정규논문

# 한국인의 '경이(awe)': 감동과의 비교를 통한 정서 유발 사건과 심리 경험 분석

이 정 은 최 훈 석†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awe'의 한국어 대응어로서 '경이'의 개념적 적절성을 검토하고, 경이 정서의 유발 사건과 심리적 경험의 특징을 유관 정서인 '감동'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1에서는 경이의 유발 사건을 범주화하여 서구에서 연구된 'awe'의 선행 사건과 비교하고, 감동과 구분되는 경이의 고유한 경험 특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영상을 활용한 실험 조작을 통해 경이와 감동을 각각 유발한 후, 경이의 고유한 심리적 경험인 '작은 자기(small self) 인식'에서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인의 '경이' 경험은 주로 광대한 자연을 통해 유발되며 작은 자기 경험을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경이 정서가 서구에서 보고된 'awe'와 유발 사건 및 심리 경험 면에서 유사함을 시사한다. 반면, 감동은 경이와 일부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면서도 대인관계 맥락에서 주로 경험되는 정서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및 실용적 함의와 장래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Awe, 경이, 감동, 작은 자기(small self) 인식

†교신저자: 최훈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hchoi@skku.edu

ⓒ 2026,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경이로운 대자연이나 탁월한 예술 작품 앞에서 사람들은 압도되는 느낌과 함께 형언하기 어려운 감정을 경험한다. 경이(awe)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체계에 충격을 줄 만큼 거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을 마주할 때 경험하는 정서이다(Keltner & Haidt, 2003). 서구에서 보고된 일련의 연구에 따르면 경이는 긍정 정서로서 개인의 정신건강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Rudd et al., 2012), 친사회적 행동(Gao & Zhu, 2025; Piff et al., 2015) 및 집단의 결속(Piff et al., 2025)을 촉진하는 사회적 기능을 지닌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또한 경이에 관한 연구는 퇴역 군인과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Anderson et al., 2018; Sturm et al., 2022), 대인관계 갈등 피해자의 인간성 회복(Cheng & Wang, 2024), 정치 및 이념 양극화 해소(Stancato & Keltner, 2021)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경이에 관한 심리학 연구는 개인의 정신건강 증진과 공동체적 삶의 복원이라는 한국 사회의 주요 의제에 관하여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경이 정서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필요성과 잠재적 기여점에도 불구하고, 경이에 관한 기존 연구는 북미와 유럽에서 수집된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경이의 신경생리학적 특징(이진우, 2024)과 상태 경외감을 측정하는 척도의 타당화 연구(박부금, 이희경, 2025)가 보고되어 경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awe'에 대응하는 한국어 정서 단어가 무엇인지, 경이가 유발되는 상황과 이에 수반되는 심리적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서는 특정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주관적 경험으로, 정서를 유발하는 선행 사건과 이에 수반되는 심리적 경험을 통해 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Frijda, 2008). 정서는 문화의 산물이며, 문화는 정서 경험에서부터 표현까지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Keltner & Lerner, 2010; Mesquita et al., 2017; Mesquita & Walker, 2003). 따라서 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특정 정서의 내용과 과정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서를 유발하는 선행 사건과 정서가 유발하는 심리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접근을 통해 해당 정서 경험의 문화 보편성과 문화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Fessler, 1999; Scherer & Moors, 2019). 이 관점에서 보면, 경이에 관한 서구의 연구 결과를 추가적 검증 작업 없이 한국인의 정서 경험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한국인들이 경이 정서를 언제 어떻게 경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에서 경이의 선행 유발 사건과 심리 경험을 확인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총 두 편의 연구를 통해 '경이'가 한국인이 일상에서 빈번히 사용하는 정서 단어로서 영어 단어 'awe'에 대응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경이는 자기초월적 정서(self-transcendent emotion)로서 고양감(elevation), 감사함(gratitude) 등의 정서와 유사한 특징을 지니며(Stellar et al., 2017; Van Cappellen & Rimé, 2013), 경이에 관한 서구의 연구 문헌에서 'awe'와 'wonder'가 혼용되기도 한다(Darbor et al., 2016; Weger & Wagemann, 2021). 이처럼 'awe'가 복잡한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하면, 'awe' 정서에 상응할 가능성이 있는 유관 정서 단어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어 '경이'가 'awe'에 대응하는 정서 단어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문화비교 연구에서 흔히 한국과 유사한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일본에서 사람들이 경이 경험을 '감동(kando)'으로 표현한다는 점(Maeura et al., 2020)에 주목하여, 경이와 감동의 선행 유발 사건과 정서 경험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 경이의 문화 보편성과 특수성

경이는 강한 기쁨과 두려움을 수반하며, 혼란과 놀라움, 감탄과도 연합되어 있는 복합 정서

이다(Frijda, 1986; Keltner & Haidt, 2003). 경이 경험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 경이는 우월한 대상에 대한 복종을 유발하는 두려움이 주를 이루는 정서로 이해되었다(Durkheim, 1887/1972; Weber, 1978). 즉, 경이는 신과 같은 초자연적 능력을 지닌 절대적 존재나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지닌 사회 지도자로부터 촉발되는 정서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대 사회심리 및 정서심리 분야의 연구에서는 경이를 긍정 정서로 분류하며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대상에 의해 경험되는 놀라움과 즐거움을 수반하는 정서로 개념화한다(Bonner & Friedman, 2011; Frijda, 1986). 서구의 경이 연구를 주도한 Keltner와 Haidt(2003)에 따르면, 복합 정서인 경이의 원형적 속성(prototypical property)은 지각된 광대함(perceived vastness)과 인지적 조정 욕구(need for accommodation)이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물리적 · 정신적으로 거대한 대상(예: 광활한 자연, 위대한 인물)을 마주했을 때 압도당하는 느낌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모호함과 혼란을 유발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닌 기존 지식으로는 대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인지적 틀을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지향되어 있던 주의 초점이 외부로 전환된다(Shiota et al., 2007). 이러한 주의 초점 전환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류 공동체와 같은 상위 수준의 집단 범주에서 자기를 표상하도록 함으로써(Tyson et al., 2022) 친사회성을 촉진한다(예: 낯선 타인에 대한 도움 행동, Piff et al., 2015; 인간, 동물, 자연에 대한 도덕적 염려, Song et al., 2023).

서구 연구에서 개념화된 경이 정서의 특징이 문화적 보편성을 지니는지, 아니면 문화권마다 다른지를 규명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이다. 경이가 정서의 표현 방식 및 기능 면에서 범문화적인 보편 정서라는 주장(Cordaro et al., 2016; Keltner, 2025)과 사람들이 경이라는 정서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과정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Razavi et al., 2016; Stellar et al., 2024)이 혼재한다. 경이에 관한 연구 문헌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경이의 문화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첫째, 비영어권 국가에서 'awe'에 대응하는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통상 'awe'의 한국어 번역어로는 경이로움, 경외심 등이 사용된다. 그러나 한국어 정서 단어 가운데 경외는 경이보다 사용 빈도가 낮고, 남녀 간 경험 빈도 차이가 있다(한덕웅 & 강혜자, 2000)는 점에서 경이에 비해 대표성이 낮다. 또한, 경외는 '두려움(畏)'을 뜻하는 한자어를 포함하고 있어서 부정적 정서 경험을 내포한다. 일례로, 박부금과 이희경(2025)은 한국에서 경외감을 측정하는 척도를 타당화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경외감 경험을 떠올리게 한 뒤 정서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경외감 경험은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한국인에게 '경외'가 긍정 정서뿐만 아니라 부정 정서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정서 경험으로 인식됨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 'awe'를 두려움, 위압감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 정서로 이해했던 초기 접근법과 달리, 현대 심리학에서는 awe를 긍정 정서로 개념화하며, awe의 유발 사건과 심리 경험을 부정 정서에 수반되는 심리 경험과 구분한다(Gordon et al., 2017; Hornsey et al., 2018). 이러한 정서 구성의 차이는 경외가 awe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는 번역어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 공통분모(예: 집단주의 가치, 상호의존적 자기)가 있는 일본에서 수행된 일련의 연구에서 경이를 개념화한 방식이다. Nakayama와 Uchida(2020)는 경이가 일본어 정서 단어 중 '외경(ikei)'과 '외포(ifu)'로 흔히 번역되며, 이는 서구에서 보고된 긍정 정서로서의 'awe'와는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미국인 참가자들과 일본인 참가자들의 정서 인식을 조사하

여, 미국인들은 'awe'를 긍정적인 정서 경험으로 이해하는 반면, 일본인들은 외경과 외포를 부정적인 정서 경험으로 인식함을 관찰하였다. 이는 '외경'과 '외포'에 포함된 두려움(畏)으로 인해, 해당 정서 표현이 긍정 정서로서의 'awe'를 일관되게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본의 학자들은 긍정적인 'awe'가 다른 정서 표현, 특히 '감동(kando)'으로 표현될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감동은 인생의 중요한 사건(예: 결혼, 출산 등)이나 타인과의 관계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주로 경험되는 정서이다(Cova & Deonna, 2014; Menninghaus et al., 2015).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서 감동은 광대한 자연이나 뛰어난 예술 작품과 같이 광대하고 인상적인 장면이나 개인의 기존 인지 틀을 넘어서는 사건을 접할 때 유발되며(Tokaji, 2003; Yasuda et al., 2022), 이는 경이의 핵심 속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 주장과 일관되게 Hashimoto와 Ogura(2002)는 자연이나 예술 작품과 같이 'awe'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일본인들이 감동 경험으로 표현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Maeura 등(2020)은 일본인들의 일상적 맥락에서 경험되는 'awe'가 경외보다는 감동과 개념적으로 더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 경이와 감동의 선행 유발 사건과 정서 경험 특징을 비교한 결과, 일본인들은 자연이나 예술 작품과 같이 경이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극을 접했을 때 '감동'을 느낀다고 보고하였으며, 경이의 핵심 속성인 지각된 광대함도 경험하였다. 그러나 감동은 타인의 친절이나 관계적 상호작용과 같은 일상적이고 대인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유발된다는 점에서 경이와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이러한 경이와 감동의 개념적 관련성과 차별성을 함께 고려하면, 한국에서 경이와 감동의 정서적 특징과 선행 유발 사건을 비교하여 두 정서의 특징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정서 경험에서 북미・유럽과 동아시아 사회 간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Mesquita & Frijda, 1992)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의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 사건으로부터 특정 정서를 경험하는 빈도가 높은 반면, 북미와 유럽 사람들은 개인 사건으로부터 정서를 경험하는 빈도가 높다(Fischer et al., 2003; Kitayama et al., 2006). 이와 일관되게, 경이의 선행 유발 사건을 조사한 선행 연구에서 미국인은 자연과 예술 작품을 접하였을 때 경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았던 반면(Shiota et al., 2007), 중국인과 일본인은 뛰어난 능력을 지닌 타인으로부터 경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빈도가 가장 높았다(Nakayama & Uchida, 2020; Stellar et al., 2024). 미국인과 중국인의 경이 선행 사건을 직접 비교한 Bai 등(2017)의 연구에서도 미국인은 자연 사건의 응답 빈도가, 중국인은 뛰어난 능력을 지닌 타인을 접한 사건의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동-서양 문화차이를 고려하면, 한국에서 경이가 서구의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유발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로부터 경험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경이 경험이 중국과 일본에서 관찰된 것처럼 주로 대인관계 사건과 연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동아시아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경이 경험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셋째, 서구의 선행 연구에서 경이의 원형적 심리 경험으로 보고된 '작은 자기 인식'이 한국인의 경이 경험에서도 일관되게 관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경이를 유발하는 대상은 지각된 광대함과 인지적 조정 욕구를 유발하며(Keltner & Haidt, 2003), 경이를 경험하는 순간 사람들은 개인 내부에 지향되어 있던 자기 인식을 외부 환경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Shiota et al., 2007).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기를 상대적으로 더 작고, 사소한(insignificant), 전체의 일부분으로 표상하게 되는데, 이를 작은 자기(small self)라고 한다(Seo et al., 2023; Tyson et al., 2022). 작은 자기는 경이 정서

에 즉각적으로 수반되는 심리 경험이며, 경이와 유관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요 심리기제로 보고되었다(Perlin & Li, 2020; Piff et al., 2015). 또한 일부 선행 연구에서 작은 자기에서의 문화차에 관해 논하고 있으나, 집단주의 사회에서 작은 자기 경험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과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혼재한다. Edwards 등(2025)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사람들은 주로 중요 타인과의 관계 맥락에서 자신을 이해하며, 자신을 전체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들어(상호의존적 자기; Markus & Kitayama, 1991), 개인주의 문화권에 비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작은 자기가 유발되는 정도가 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Yang 등(2016)은 작은 자기 경험이 겸손이나 조화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중시하는 가치를 더 강하게 내재화하도록 하기 때문에 작은 자기 경험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과 함께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일본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경험할 때 작은 자기가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Maeura et al., 2020)를 고려하면, 작은 자기 인식에서 경이와 감동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한국인을 대상으로 두 정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명할 수 있다.

## 연구 개관

총 두 편의 조사 및 실험연구에서 한국인의 경이 경험을 유발하는 선행 사건을 조사하고, 경이가 유발하는 심리 경험을 확인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는 경이와 감동의 비교를 통해 경이가 서구에서 보고된 'awe'에 상응하는 정서인지를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자료를 분류하여 한국인들이 경이와 감동을 각각 언제 경험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경이와 감동 경험이 작은 자기 인식을 유발하는지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 연구 1

정서 경험을 적절한 용어로 명명하고, 그 정서가 어떤 사건을 통해 유발되는지를 밝히는 것은 정서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며(한덕웅, 강혜자, 2000; Frijda, 1988),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신의 언어로 작성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최상진, 한규석, 2000). 특정 정서 경험의 선행 유발 사건을 조사하는 작업은 양적 자료 수집에 사용되는 폐쇄형 질문지 방식보다는 개방형 질문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구재선, 김의철, 2006; 송경재 등, 2010). 이 점을 고려하여 연구 1에서는 개방형 조사를 통해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이와 감동을 경험한 순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응답 자료를 범주화하여 경이와 감동의 정서 유발 사건을 비교하였다.

### 방 법

#### 참가자 및 연구 절차

대한민국 거주 성인(만 18세 ~ 만 59세 이하) 347명이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중 질문지에서 제시한 해당 정서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거나, 평정이 불가능한 응답을 한 13명을 제외한 총 33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남 50.3%, 여 49.7%, 평균 연령 30.14세, 연령 표준편차 = 10.76). 참가자들은 경이($n$ = 168), 감동($n$ = 166) 중 한 가지 정서 조건에 무선 할당되어 경이 또는 감동을 경험한 사건을 묻는 질문과 인구통계변수 조사 문항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 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승인번호: SKKU 2022-03-037).

## 측정 도구

### 경이, 감동 유발 사건 질문지

일상경험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해당 경험을 떠오르는 대로 모두 기술하도록 하는 방식이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경이는 복합 정서로서 고양감, 감사함 등의 유관 정서와 연합되어 있다는 점(Keltner & Haidt, 2003)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이를 유발하는 선행 사건이 다른 정서를 함께 유발하거나, 유관 정서를 촉발하는 사건으로부터도 경이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이의 원형적 속성을 유발하는 선행 사건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가장 구체적이고 선명한 정서 경험을 떠올려 응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Russell & Barrett, 1999). 또한, 인지적 접근성이 높은 사건이 곧 경이의 원형적 속성을 유발하는 사건은 아니라는 점에서, 자유 회상만으로는 의미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Yaden 등(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특정 정서를 강하게 경험한 사례를 묻는 방식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참가자는 먼저 경이 또는 감동을 느꼈던 사건을 묻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참가자는 과거 경이 또는 감동을 경험한 순간을 최소 다섯 가지에서 최대 열 가지를 떠올린 뒤, 이를 기록하였다(“지금부터 잠시 눈을 감고 귀하가 경이로움(감동)을 느꼈던 순간들을 마음에 떠올려 주십시오. 귀하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경이로움(감동)의 순간들을 최소 다섯 개 이상 적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참가자는 앞서 작성한 최소 다섯 가지 응답 중에서 경이 또는 감동을 가장 강하게 경험한 사건 하나를 골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다(“앞에서 작성한 사례들 가운데 귀하가 경이로움(감동)을 가장 강하게 느낀 사례 하나를 선택하여, 그 내용을 아래 빈칸에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결 과

두 명의 대학원생이 1차로 참가자들의 응답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 범주를 생성하고, 두 명의 사회심리 전문가가 논의를 통해 16개의 최종 범주 목록을 작성하였다. 범주 분류를 위해 각 범주의 정의와 범주를 대표하는 응답 사례를 포함하는 분류 기준표를 만들고, 평정자 두 명이 분류 지침을 숙지한 후 순차적으로 응답을 각 범주에 할당하였다. 평정자 간 일치도는 두 평정자가 347개 응답 중 정서를 경험한 순간을 떠올리지 못한 응답(예: “없음”)과 분류 불가 응답(예: “.”) 13개를 제외한 총 334개 응답을 각 범주에 분류한 뒤, Cohen’s kappa 계수를 통해 분류 일치도를 계산하여 점검하였다. 평정자 간 일치도를 확인한 결과, Cohen’s kappa 계수는 .730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일치도를 보였다(Landis & Koch, 1977). 이후, 범주 분류가 일치하지 않은 응답에 대해서는 두 평정자 간 논의를 통해 불일치를 해소하였다. 끝으로, 각 범주에 할당된 응답의 빈도자료를 산출하였다. 각 범주의 빈도가 정서 조건에 의해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chi^2$ 독립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후, 각 정서 조건에서 범주 빈도의 상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2$ 잔차(residual) 분석을 활용하여 사후 비교를 실시하였다(Field, 2018; Sharpe, 2015).

## 정서 유발 사건 응답

경이와 감동을 유발한 사건 응답에서 추출된 총 16개 범주 중 응답 빈도가 5%를 넘는 여섯 개 주요 범주를 표 1에 제시하였다(전체 분류 결과는 부록 1을 참조). 경이 정서를 경험한 사건 응답 중 가장 많은 응답은 ‘자연’(23.81%) 범주에 속하였다(예: “제주도의 밤하늘을 보고 자연과 우주의 위대함에 경이로움을 느낀 적이 있다”). 두 번째는 ‘뛰어난 능력과 성취’(16.67%) 범주로, “응원하던 e스포츠 팀이 국제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등을 포함했다, 세 번째는 ‘생명의

표 1. 경이, 감동 정서 유발 사건 6개 핵심 범주 분류 결과

| 범주명 | 정의 | 경이 | 감동 | 빈도 비교 |
|---|---|---|---|---|
| |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잔차 |
| 자연 | 자연에 대한 감각적 경험. | 40(23.81) | 1(0.60) | 6.46 |
| 뛰어난 능력과 성취 | 나 또는 내가 속한 팀, 타인이 노력이나 뛰어난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내거나,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성공한 경험. | 28(16.67) | 26(15.66) | 0.25 |
| 생명의 신비 | 생명의 탄생이나 성장을 목격하거나 생명을 잉태, 출산한 경험. 살아 있음을 느끼게 된 경험. | 27(16.07) | 35(21.08) | 1.18 |
| 예술적 경험 | 뛰어난 예술 작품(음악, 미술 등)이나 결과물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 15(8.93) | 4(2.41) | 2.57 |
| 관계 상태 변화 및 증진 | 타인과의 관계 상태가 달라지거나(형성, 재회, 단절) 증진되는 사건을 경험. | 8(4.76) | 12(7.23) | 0.95 |
|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적 지지 및 선행 |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사회적 지지를 받거나, 자신이 타인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 경험.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선행을 제공한 사례를 알게 된 경험. | 6(3.57) | 70(42.17) | 8.41 |
| 기타 | – | 44(26.19) | 18(10.84) | – |

주. 6개 범주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범주는 기타로 묶어 빈도와 백분율을 표기하였음.
잔차는 절댓값으로 표기하였음.

신비'(16.07%) 범주였으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네 번째는 '예술적 경험'(8.93%) 범주로,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 앞에 섰을 때"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그 외 '관계 상태 변화 및 증진'(4.76%),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적 지지 및 선행'(3.57%)의 반응률은 5% 미만이었다.

반면, 감동 정서에서 응답이 가장 높은 범주는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적 지지 및 선행'(42.17%) 범주였다(예: "난치병 치료 중 친구들이 병문안을 와 주고 편지를 전달해줬다"). 두 번째는 '생명의 신비(21.08%)' 범주로 "첫 아이가 태어나고 볼에 얼굴을 부볐을 때" 등의 응답을 포함하였다. 세 번째는 '뛰어난 능력과 성취(15.66%)' 범주로, "회사에서 어려운 프로젝트 성공"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경이 경험에서 응답 빈도가 높았던 '예술적 경험', '자연' 범주 응답은 5% 미만으로 나타났다(각각 2.41%, 0.60%).

각 정서에 따른 범주 빈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chi^2$ 독립성 검증 결과, 정서 조건에 따른 범주 빈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1, N = 334) = 122.89$, $p < .001$. 경이와 감동 각 정서에 따른 세부 범주에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chi^2$ 잔차를 사용하여 사후 비교를 실시하였다(Sharpe, 2015). 개별 범주마다 기대 빈도와 관측 빈도의 오차를 계산하여 잔차를 산출한 뒤, 잔차의 절댓값이 2를 초과하는 범주를 정서 간 유발 사건 차이에 더 많은 기여를 한 범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경이 정서에서 감동 정서에 비해 '자연', '예술적 경험' 범주의 빈도가 높았으며, '대인관계에서의 사회

적 지지 및 선행' 범주의 빈도는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이와 감동 정서는 핵심적인 선행 유발 사건에서 구분되는 정서임을 나타낸다.

## 논 의

한국인들에게 경이와 감동을 유발하는 선행 사건을 확인한 결과, 경이와 감동 정서는 정서 유발 사건 측면에서 구분되는 정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이 정서에서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던 범주는 '자연'이었으나 감동 정서는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적 지지 및 선행' 범주의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다. 미국에서 'awe'의 유발 사건을 조사한 Shiota 등(2007)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연 풍경이나 예술 작품과 같이 풍부한 정보량을 지닌 자극(information-rich stimuli)을 접했을 때 'awe'를 경험한다. 이러한 자극은 사람들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생각의 틀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awe'의 원형적 속성과 일관된다(Keltner & Haidt, 2003). 연구 1에서 관찰된 경이의 선행 유발 사건 가운데 '자연' 범주가 가장 높은 응답 빈도를 보인 점은 한국에서 경이 경험이 서구에서 보고된 'awe'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풍부한 정보량을 지닌 대상이나 사건으로부터 경험되는 정서임을 시사한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감동은 대인관계 사건에서 주로 경험되는 정서라는 점에서 경이나 서구의 'awe'와는 구분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자연, 예술 작품에 대한 정서 반응을 감동으로 표현하는 것과 달리(Hashimoto & Ogura, 2002), 본 연구에서 한국인의 감동 경험을 유발하는 선행 사건은 대인관계 관련 사건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자연과 예술 작품 범주 응답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 1의 결과는 한국에서 경이를 유발하는 사건과 서구의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awe'의 정서 유발 사건이 상응함을 시사하지만, 개인의 기억자료에서 추출된 정서 유발 사건의 유사성만으로는 경이와 'awe'의 상응성을 판단하는 데 제약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연구 2에서는 실험 조작을 통해 인과관계에 관한 추론을 시도하였다.

##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영상 자극을 통해 경이와 감동을 각각 유발한 다음, 각 정서가 작은 자기(small self) 인식을 유발하는지 알아보았다. 작은 자기는 경이가 유발하는 핵심 심리 경험으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경이의 효과를 매개하는 변수이다(Perlin & Li, 2020; Piff et al., 2015). 특히 작은 자기 인식은 다른 긍정 정서(예: 즐거움, 감사, 자랑스러움)와 경이를 구분하는 핵심 속성이다(Campos et al., 2013; Nelson-Coffey et al., 2019). 경이를 유발하는 광대한 자극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경이를 경험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 크기를 평소보다 작게 인식하고, 무언가 거대한 것 앞에 놓인 듯한 느낌을 받는다(Tyson et al., 2022). 작아진 자기 인식은 물리적 크기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관적 크기 인식에도 변화를 유발하여, 자기가 중요하다는 인식도 평소보다 낮아지고, 스스로를 더 큰 실체에 포함된 일부로 지각하게 된다(Shiota et al., 2007).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경이가 유발하는 작은 자기 인식에서 문화보편성 관점과 문화특수성 관점이 혼재한다는 점(참조: Edwards et al., 2025; Yang et al., 2016), 그리고 일본에서 강한 감동이 'awe'와 유사한 수준의 작은 자기 경험을 유발함(Maeura et al., 2020)에 주목하여, 한국에서 경이가 작은 자기 인식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경이와 감동이 작은 자기 경험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였다.

## 방 법

### 참가자 및 실험설계

국내 소재 사립대학 심리학 강좌 수강생 126명(남 44.4%, 여 55.6%, 평균 연령 19.93세, 연령 표준편차 = 1.54)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정서 자극을 독립변수로 하는 일원 참가자 간 설계로서, 경이 영상 조건($n$ = 45), 감동 영상 조건($n$ = 40), 그리고 통제 조건($n$ = 41)에 참가자들을 무선 배정하였으며 한 회기 당 최대 네 명까지 실험에 참여하였다. 영상 자료의 정서 유발 효과성에 관한 선행 연구의 절차를 참고하여(Gross & Levenson, 1995), 참가자들이 서로 분리된 암실에서 각자 정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 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승인번호: SKKU 2023-11-012).

### 절차 및 측정 도구

참가자들은 칸막이로 분리된 자리에 앉은 뒤, 연구 목적과 절차를 안내받았다. 주변의 소음을 차폐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헤드셋을 착용한 뒤 책상에 놓인 15인치 노트북 컴퓨터로 정서 영상을 시청하였다. 참가자들은 실험 조건에 따라 제시된 정서 영상을 시청하고, 작은 자기 인식 측정 문항과 영상 조작점검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응답이 종료된 후, 참가자들에게 실험의 목적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실험을 종료하였다.

#### 경이, 감동 유발 영상

정서에 관한 실험 연구에서는 특정 정서 조작을 위해 과거 정서 경험을 회상하게 하거나, 정서를 유발하는 사진 또는 영상 자극을 시청하게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며(Uhrig et al., 2016; Zupan & Baggage, 2017), 그중 영상물을 활용한 정서 조작 방법은 효과성 및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chaefer et al., 2010).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참가자들에게 영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경이와 감동 정서 경험을 각각 유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 정서별 응답 빈도가 가장 높은 범주의 응답 내용을 포함하는 영상을 제작하였다. 경이 조건에서는 순서대로 넓은 바다, 거대한 협곡, 빙하, 숲, 큰 나무, 폭포, 지면에서 점점 멀어지며 지구, 우주로 이어지는 내용의 영상을 사용하였으며, 영상의 길이는 1분 24초였다. 감동 영상은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국어 시험을 가장하여 전달된 부모님의 격려, 응원의 편지를 읽는 장면을 편집하여 사용하였으며, 영상의 길이는 1분 40초였다. 통제 조건은 가까이서 본 풀, 꽃, 들판, 비가 오는 장면을 편집하여 만든 영상을 제시했으며, 영상의 길이는 1분 31초였다. 모든 영상에는 소리가 포함되었다. 각 조건 별 영상 내용 일부는 부록 2에 제시되었다.

#### 조작 점검 및 작은 자기 측정

각 정서 영상이 목표 정서를 효과적으로 유발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영상을 시청하며 느낀 경이와 감동을 묻는 문항("귀하는 영상을 본 직후, 아래 제시된 각 정서를 얼마나 느끼셨습니까?")에 7점 척도(0 = 전혀 느끼지 않았다, 6 = 매우 강하게 느꼈다)로 답하도록 하였다. 작은 자기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Piff 등(2015)이 개발한 작은 자기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작은 자기는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예: "나 자신보다 거대한 뭔가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의 일상적 고민들은 단지 사소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을 읽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를 7점 척도에 응답하였다(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 분석에는 전체 10개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사용하였으며($\alpha$ = .90), 작은 자기 값이 클수록 작은 자기 인식이 강하게 발현되었음을 의미한다.

## 결 과

자료분석에는 SPSS 프로그램(version 27.0)을 사용하였다. 먼저, 정서 영상이 목표 정서를 효과적으로 유발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 및 혼합설계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정서 자극에 따른 정서 경험 응답값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후, 정서 자극에 따른 작은 자기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비교에는 Tukey의 HSD(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를 적용하였다. 조작 점검 및 작은 자기 인식의 기술통계치는 표 2에 제시되었다.

### 조작점검

영상 자극을 통해 정서를 조작한 선행 연구에서 특정 정서가 단일 정서로 분리되어 유도되기보다 유관 정서가 함께 경험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다. 이 경우 특정 조건에서 목표 정서가 유관 정서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발되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정서 조작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다(Gross & Levenson, 1995; Philippot, 1993).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분석을 통해 조작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조건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이 정서에 대한 분석 결과, 정서 자극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2, 123) = 57.95$, $p < .001$, $\eta_p^2 = .49$. 경이 영상 조건($M = 5.09$, $SD = 1.35$)의 참가자들은 감동 영상 조건($M = 1.58$, $SD = 1.57$), $p < .001$, $d = 2.40$, 및 통제 조건($M = 2.34$, $SD = 1.85$)의 참가자들보다 경이를 강하게 경험하였으며, $p < .001$, $d = 1.70$, 감동 영상 조건과 통제 조건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 = .08$. 감동 정서에 대한 분석 결과, 정서 자극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2, 123) = 36.91$, $p < .001$, $\eta_p^2 = .38$. 감동 영상 조건($M = 5.35$, $SD = 1.00$)의 참가자들은 경이 영상 조건($M = 3.84$, $SD = 1.58$), $p < .001$, $d = 1.14$, 및 통제 조건($M = 2.46$ $SD = 1.82$)의 참가자들보다 감동을 강하게 경험하였으며, $p < .001$, $d = 1.97$, 경이 영상 조건의 참가자들은 통제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감동을 강하게 경험하였다, $p < .001$, $d = 0.81$.

다음으로, 정서 자극 조건 내에서 목표 정서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경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서 자극을 참가자 간 변수로, 정서 유형을 참가자 내 변수로 하는 혼합설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서 유형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나, $F(1, 123) = 32.17$, $p < .001$, $\eta_p^2 = .21$, 정서 자극과 정서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여 해석에 제한을 받는다, $F(2, 123) = 91.83$, $p < .001$, $\eta_p^2 = .60$. 단순 주효과 분석

표 2. 정서 영상 조건 별 기술통계치

| | 경이 영상 조건 | | 감동 영상 조건 | | 통제 조건 | |
|---|---|---|---|---|---|---|
| | *M* | *SD* | *M* | *SD* | *M* | *SD* |
| 경이 | 5.09 | 1.35 | 1.58 | 1.57 | 2.34 | 1.85 |
| 감동 | 3.84 | 1.58 | 5.35 | 1.00 | 2.46 | 1.82 |
| 작은 자기 인식 | 3.47 | 1.40 | 2.65 | 0.17 | 1.98 | 0.98 |
| 왜도 | | -.11 | | -.74 | | .60 |
| 첨도 | | -1.45 | | -.59 | | -.15 |

주. $N = 126$

결과, 경이 영상 조건의 참가자들은 경이($M$ = 5.09, $SD$ = 1.35)를 감동($M$ = 3.84, $SD$ = 0.23) 보다 강하게 경험한 반면, $F(1, 123) = 22.82$, $p < .001$, $\eta_p^2 = .16$, 감동 영상 조건의 참가자들은 경이($M$ = 1.58, $SD$ = 0.25)보다 감동($M$ = 5.35, $SD$ = 0.24)을 강하게 경험하였다, $F(1, 123) = 186.63$, $p < .001$, $\eta_p^2 = .60$. 통제 조건에서는 경이($M$ = 2.34, $SD$ = 0.25)와 감동($M$ = 2.46, $SD$ =0.24)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 123) = 0.20$, $p = .656$, $\eta_p^2 < .01$.

### 경이, 감동 경험에 따른 작은 자기 인식의 차이

정서 자극에 따른 작은 자기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1). 분석 결과, 작은 자기 인식에서 정서 자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F(2, 123) = 17.67$, $p < .001$, $\eta_p^2 = .22$. 사후 비교 결과, 작은 자기 인식은 경이 영상 조건($M$ = 3.47, $SD$ = 1.40)의 참가자들이 감동 영상 조건($M$ = 2.65, $SD$ = 1.04), $p = .004$, $d = 0.66$, 및 통제 조건 ($M$ = 1.98, $SD$ = 0.98), $p < .001$, $d = 1.22$, 의 참가자들보다 높았다. 또한 감동 영상 조건의 참가자들이 통제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높은 작은 자기 인식을 보고하였다, $p = .029$, $d = 0.65$.

## 논 의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확인된 경이와 감동 정서 유발 사건을 영상으로 제시한 후 참가자들의 정서 경험 및 작은 자기 인식에서 차이가 관찰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경이와 감동이 구분되는 정서인지, 그리고 경이가 awe에 상응하는 정서로서 작은 자기 인식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조작 점검 결과, 각 정서 자극은 목표 정서를 효과적으로 유발하였다. 흥미롭게도 경이 영상 조건에서 광대한 자연을 접한 참가자들은 통제 조건보다 높은 수준의 감동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감동이 주로 대인관계 사건을 통해 경험되는 정서이기는 하나 대자연을 통해서도 경험될 수 있으며, 경이와 감동이 공통점을 지닌 유관 정서임을 보여준다. 한편, 경이 영상 조건의 참가자들은 경이를 감동보다 강하게 경험하였으며, 감동 영상 조건의 참가자들은 경이보다 감동을 강하게 경험하였다. 이는 각 영상 자극이 목표 정서를 효과적으로 유발하였음을 시사한다.

작은 자기 인식에서의 조건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경이 영상 조건에서 통제 조건이나 감동 영상 조건보다 높은 수준의 작은 자기 인식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경이가 유발하는 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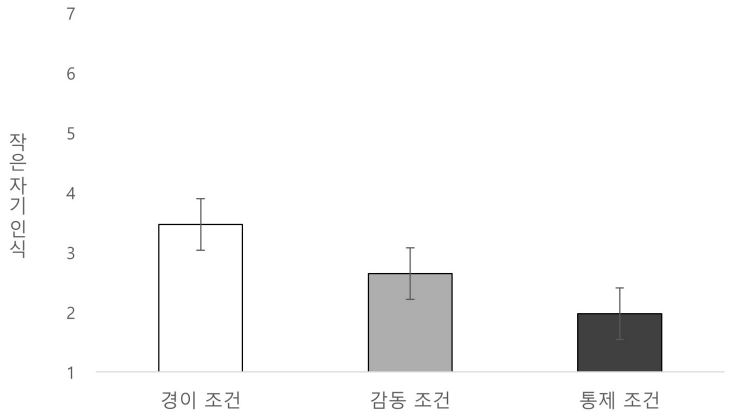



그림 1. 정서 조건에 따른 작은 자기 인식 일원 분산분석 결과

주. 오차막대는 ±2 표준오차를 나타냄.

심 심리기제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인의 경이 경험이 서구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awe'의 주요 심리 경험을 수반함을 시사한다. 감동 영상 조건에서도 통제 조건보다 높은 작은 자기 인식이 관찰되었지만, 그 수준은 자연으로부터 경이를 경험한 조건보다는 낮았다. 감동 영상 조건에서 통제 조건보다 높은 수준의 작은 자기 인식이 관찰된 것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준 타인을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광대하게 인식하는 데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종합 논의

본 연구는 경이에 관한 연구가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음에 주목하여, 선행 연구에서 관찰된 경이 정서의 작동 원리가 한국의 사회적 환경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즉, 경이 정서에 수반되는 경험과 그에 따른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번역어가 아닌, 사람들의 실제 정서 경험에 연합된 표현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접근을 통해 향후 한국인의 정서 경험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총 두 편의 연구를 통해 경이를 유발하는 선행 사건과 경이 정서 경험에 수반되는 원형적 심리 경험(작은 자기 인식)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한국인들은 서구의 'awe' 연구에서 관찰된 바와 일관되게, 광대한 자연으로부터 경이를 경험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고(연구 1), 경이를 경험할 때 높은 수준의 작은 자기 인식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연구 2).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경이와 감동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별되는 정서임도 확인하였다. 연구 1의 결과, 경이와 감동은 선행 유발 사건에서 일부 공통점이 있으나(예: '생명의 신비', '뛰어난 능력과 성취'), 경이는 자연이나 예술 작품을 통해 주로 경험되는 반면, 감동은 타인의 사회적 지지 사건으로부터 주로 경험된다는 점에서 구별되었다. 전반적으로 이 결과는 경이가 서구의 'awe'에 상응하는 정서이며, 최소한 한국과 북미 및 유럽 간에 보편적 경이 정서 경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보고된 바 없는 한국인의 경이 정서 선행 유발 사건과 심리기제를 확인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과 일본에서 사람들이 주로 대인관계 사건을 통해 'awe'를 경험한다는 선행 연구(예: Bai et al., 2017; Stellar et al., 2024)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인들은 자연으로부터 경이를 경험하는 빈도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차이가 선행 연구와의 방법론적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이가 선행 유발 사건의 측면에서 고양감이나 경탄 등과 유사성이 있음에 착안하여 경이를 강하게 경험한 사건을 분석하였으나, 중국과 일본에서 보고된 경이 연구에서는 자유 회상을 통해 수집된 일상 경험 자료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관계가 중시되는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상 경이 정서의 경험에서 대인관계 사건에 관한 회상률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양상일 수 있으며, 강한 정서 경험이 아닌 일상적 경험 자료를 활용한 중국과 일본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저선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인들은 대인관계 사건으로부터는 주로 감동을 경험하며, 경이보다는 약하지만 감동 역시 일정 수준 작은 자기 인식을 유발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와 달리, 미국인들은 대인관계와 연합된 경이 경험을 대인 경이(interpersonal awe)로 분류한다(Graziosi & Yaden, 2021). 또 다른 한 편으로, 한국에서는 경이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자극이 자연인 반면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게 나타나는 차이가 한국과 일본의 생태 환경 차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추론할 수 있다. 즉,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빈번히 경험하는 일본인들은 위협의 원천으로서의 자연과 경이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부정 정서로서의 외경, 외포와 긍정 정서로서의 감동을 각기 다른 정서 단어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화적 맥락 및 생태 환경과 정서 경험의 관계 역시 추후 연구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 문제이다.

이러한 잠재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닌 몇 가지 제한점은 장래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인의 경이 정서 경험을 타당하게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인의 경이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한국어 단축판 상태 경외감 척도(K-AWE-SF)가 보고된 바 있다(박부금, 이희경, 2025). 해당 척도에는 '자기 축소' 경험을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경이의 주요 심리 경험으로 다룬 작은 자기 경험을 포착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 맥락에서 경이 정서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상태 척도에 더해 개인의 안정적인 경향성을 반영하는 기질 경이 척도 개발을 통해 경이 연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선행 유발 사건 및 주요 심리 경험의 측면에서 경이와 awe의 관련성을 시사하지만, 경이 정서의 경험과 후속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정서의 행동 유도성(Frijda, 2008)을 감안할 때 특히 중요한 연구 문제이다. 서구의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awe 경험과 행동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한국에서 경이 정서의 경험이 유발하는 행동을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통찰을 발견할 수 있다. 서구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경이 경험은 개인의 친사회적 동기를 높이며, 타인을 위한 기부·봉사 활동 참여 의도를 증진한다(Piff et al., 2015; Rudd et al., 2012). 또한 작은 자기 경험은 자기 내부에 집중되어 있던 주의 초점을 자기 외부로 전환하여 집단의 조화를 촉진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Piff et al., 202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이는 공동체에 대한 동일시를 강화하고 집단을 위한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할 가능성이 있다(Bai et al.,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이와 집단 지향 행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경이 경험이 개인에 초점화된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더해, 집단과 공동체에 지향된 행동을 예측하는지 확인함으로써 경이와 행동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를 확장할 수 있다.

## 저자소개

이정은은 충남대학교와 Stony Brook University 심리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연구 관심사는 경이(awe), 긍정 정서, 집단 간 갈등과 도움 행동이다.

최훈석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집단 과정 및 집단 간 관계를 연구한다. 최근에는 집단주의 가치와 독립적 자기의 시너지 모형을 적용하여 집단 효과성, 집단 간 화해와 갈등해소, 집단에서의(義)와 충(忠)의 발현, 개인과 집단의 공번영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 참고문헌

구재선, 김의철 (2006). 한국인의 행복 경험에 대한 토착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2), 77-100.

박부금, 이희경 (2025). 한국판 단축형 경외감 척도 (K-AWE-SF)의 타당화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5(10), 875-893. https://doi.org/10.5392/JKCA.2025.25.10.875

송경재, 김윤영, 박율우, 박성미, 신지영, 한성열

(2010). '삐침'의 심리적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1), 43-61.

이진우 (2024). Awe is characterized as an ambivalent experience in the human behavior and cortex.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박사학위논문.

최상진, 한규석 (2000). 문화심리학적 연구방법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123-144.

한덕웅, 강혜자 (2000). 한국어 정서 용어들의 적절성과 경험 빈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2), 63-99.

Anderson, C. L., Monroy, M., & Keltner, D. (2018). Awe in nature heals: Evidence from military veterans, at-risk youth, and college students. *Emotion, 18*(8), 1195-1202. https://doi.org/10.1037/emo0000442

Bai, Y., Maruskin, L. A., Chen, S., Gordon, A. M., Stellar, J. E., McNeil, G. D., Peng, K., & Keltner, D. (2017). Awe, the diminished self, and collective engagement: Universals and cultural variations in the small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3*(2), 185-209. https://doi.org/10.1037/pspa0000087

Bonner, E. T., & Friedman, H. L. (2011). A conceptual clarification of the experience of awe: An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The Humanistic Psychologist, 39*(3), 222-235. https://doi.org/10.1080/08873267.2011.593372

Campos, B., Shiota, M. N., Keltner, D., Gonzaga, G. C., & Goetz, J. L. (2013). What is shared, what is different? Core relational themes and expressive displays of eight positive emotions. *Cognition and Emotion, 27*(1), 37-52. https://doi.org/10.1080/02699931.2012.683852

Cheng, L., & Wang, X. (2024). Shining our humanity: The benefits of awe on self-humanity. *Emotion, 24*(3), 589-601. https://doi.org/10.1037/emo0001293

Cordaro, D. T., Keltner, D., Tshering, S., Wangchuk, D., & Flynn, L. M. (2016). The voice conveys emotion in ten globalized cultures and one remote village in Bhutan. *Emotion, 16*(1), 117-128. https://doi.org/10.1037/emo0000100

Cova, F., & Deonna, J. A. (2014). Being moved. *Philosophical Studies, 169*(3), 447-466. https://doi.org/10.1007/s11098-013-0192-9

Darbor, K. E., Lench, H. C., Davis, W. E., & Hicks, J. A. (2016). Experiencing versus contemplating: Language use during descriptions of awe and wonder. *Cognition and Emotion, 30*(6), 1188-1196. https://doi.org/10.1080/02699931.2015.1042836

Durkheim, E. (1887). Review of Guyau: L'irreÂligion de l'avenir. In *Revue Philosophique*, *23*, 1887. Reprinted in A. Giddens (Ed.), *Emile Durkheim, selected writings* (1972). Cambridge University Press.

Edwards, M. E., Mendenhall, K., Sanders, C., & King, L. A. (2025). Small but still significant: Awe and the sel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Article 01461672251359336. https://doi.org/10.1177/01461672251359336

Fessler, D. M. T. (1999).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universality of second order emotions. In A. L. Hinton (Ed.), *Biocultural approaches to the emotions* (pp. 75-116).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eld, A. (2018). *Discovering statistics using IBM SPSS statistics* 5th ed. University of Sussex.

Fischer, A. H., Manstead, A. S., & Zaalberg, R. (2003). Social influences on the emotion proces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4*(1), 171-201. https://doi.org/10.1080/10463280340000054

Frijda, N. (1986). *The emo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Frijda, N. H. (1988). The law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43*(5), 349-358. https://doi.org/10.1037/0003-066X.43.5.349

Frijda, N. H. (2008). The psychologists' point of view. In M. Lewis, J. M. Haviland-Jones, & L. F. Barrett (Eds.), *Handbook of emotions* (pp. 68-87). The Guilford Press.

Gao, M., Qiu, X., & Zhu, H. (2025). The relationship between awe and prosocial behavior: A three-level meta-analysi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47*(3), 127-141. https://doi.org/10.1080/01973533.2024.2433721

Gordon, A. M., Stellar, J. E., Anderson, C. L., McNeil, G. D., Loew, D., & Keltner, D. (2017). The dark side of the sublime: Distinguishing a threat-based variant of aw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3*(2), 310-328. https://doi.org/10.1037/pspp0000120

Graziosi, M., & Yaden, D. (2021). Interpersonal awe: Exploring the social domain of awe elicitor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6*(2), 263-271. https://doi.org/10.1080/17439760.2019.1689422

Gross, J. J., & Levenson, R. W. (1995). Emotion elicitation using films. *Cognition and Emotion, 9*(1), 87-108. https://doi.org/10.1080/02699939508408966

Hashimoto, I., & Ogura, T. (2002).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ly moved experiences and empathic tendency in adolescence. *Bulletin of the Faculty of Education (Educational Sciences), Ehime University. 48*, 57-73.

Hornsey, M. J., Faulkner, C., Crimston, D., & Moreton, S. (2018). A microscopic dot on a microscopic dot: Self-esteem buffers the negative effects of exposure to the enormity of the univers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6*, 198-207. https://doi.org/10.1016/j.jesp.2018.02.009

Keltner, D. (2025). Awe, innovation, and choice: A conceptual analysis.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35*(2), 329-344. https://doi.org/10.1002/jcpy.1449

Keltner, D., & Haidt, J. (2003). Approaching awe, a moral, spiritual, and aesthetic emotion. *Cognition and Emotion, 17*(2), 297-314. https://doi.org/10.1080/02699930302297

Keltner, D., & Lerner, J. S. (2010). Emotion. In S. T. Fiske, D. T. Gilbert, &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pp. 317-352). John Wiley & Sons. https://doi.org/10.1002/9780470561119.socpsy001009

Kitayama, S., Mesquita, B., & Karasawa, M. (2006). Cultural affordances and emotional experience: Socially engaging and disengaging emotion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5), 890-903. https://doi.org/10.1037/0022-3514.91.5.890

Landis, J. R., & Koch, G. G. (1977). The measurement of observer agreement for categorical data. *Biometrics, 33*(1). 159-174. https://doi.org/10.2307/2529310

Maeura, N., Nakayama, M., & Uchida, Y. (2020). The discriminability and commonality between awe and "kando"(being emotionally moved) in Japan. *Cognitive Studies, 27*(3), 262-279. https://doi.org/10.11225/cs.2020.036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al variation in the self-concept. In: Strauss, J., Goethals, G.R. (eds) *The self: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pp. 18-48).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1-4684-8264-5_2

Menninghaus, W., Wagner, V., Hanich, J., Wassiliwizky, E., Kuehnast, M., & Jacobsen, T. (2015). Towards a psychological construct of being moved. *PLoS ONE, 10*(6), Article e0128451.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28451

Mesquita, B., & Frijda, N. H. (1992). Cultural variations in emotions: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2*(2), 179-204.

Mesquita, B., & Walker, R. (2003). Cultural differences in emotions: A context for interpreting emotional experienc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7), 777-793. https://doi.org/10.1016/S0005-7967(02)00189-4

Mesquita, B., Boiger, M., & De Leersnyder, J. (2017). Doing emotions: The role of culture in everyday emotion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28*(1), 95-133. https://doi.org/10.1080/10463283.2017.1329107

Nakayama, M., & Uchida, Y. (2020). Meaning of awe in Japanese (con)text: Beyond fear and respect. *Psychologia, 62*(1), 46-62. https://doi.org/10.2117/psysoc.2020-B004

Nelson-Coffey, S. K., Ruberton, P. M., Chancellor, J., Cornick, J. E., Blascovich, J., & Lyubomirsky, S. (2019). The proximal experience of awe. *PLoS ONE, 14*(5), Article e0216780.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16780

Perlin, J. D., & Li, L. (2020). Why does awe have prosocial effects? New perspectives on awe and the small self.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5*(2), 291-308. https://doi.org/10.1177/1745691619886006

Philippot, P. (1993). Inducing and assessing differentiated emotion-feeling states in the laboratory. *Cognition and Emotion*, *7*(2), 171-193. https://doi.org/10.1080/02699939308409183

Piff, P. K., Dietze, P., Feinberg, M., Stancato, D. M., & Keltner, D. (2015). Awe, the small self, and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8*(6), 883-899. https://doi.org/10.1037/pspi0000018

Piff, P. K., Singhal, I., & Bai, Y. (2025). Bridging me to we: Awe is a conduit to cohesive collective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62*, 101979. https://doi.org/10.1016/j.copsyc.2024.101979

Razavi, P., Zhang, J. W., Hekiert, D., Yoo, S. H., & Howell, R. T. (2016). Cross-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experience of awe. *Emotion, 16*(8), 1097. https://doi.org/10.1037/emo0000225

Rudd, M., Vohs, K. D., & Aaker, J. (2012). Awe expands people's perception of time, alters decision making, and enhances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23*(10), 1130-1136. https://doi.org/10.1177/0956797612438731

Russell, J. A., & Barrett, L. F. (1999). Core affect, prototypical emotional episodes, and other things called emotion: Dissecting the elepha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5), 805-819. https://doi.org/10.1037/0022-3514.76.5.805

Schaefer, A., Nils, F., Sanchez, X., & Philippot, P. (2010).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a large database of emotion-eliciting films: A new tool for emotion researchers. *Cognition and Emotion, 24*(7), 1153-1172. https://doi.org/10.1080/02699930903274322

Scherer, K. R., & Moors, A. (2019). The emotion process: Event appraisal and component differenti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70*(1), 719-745.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122216-011854

Seo, M., Yang, S., & Laurent, S. M. (2023). No one is an island: Awe encourages global citizenship identification. *Emotion, 23*(3), 601-612. https://doi.org/10.1037/emo0001160

Sharpe, D. (2015). Your chi-square tes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Now what?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 Evaluation, 20*(8). https://doi.org/10.7275/tbfa-x148

Shiota, M. N., Keltner, D., & Mossman, A. (2007).

The nature of awe: Elicitors, appraisals, and effects on self-concept. *Cognition and Emotion, 21*(5), 944-963. https://doi.org/10.1080/02699930600923668

Song, J. Y., Klebl, C., & Bastian, B. (2023). Awe promotes moral expansiveness via the small-self. *Frontiers in Psychology, 14*, Article 1097627. https://doi.org/10.3389/fpsyg.2023.1097627

Stancato, D. M., & Keltner, D. (2021). Awe, ideological conviction, and perceptions of ideological opponents. *Emotion, 21*(1), 61-72. https://doi.org/10.1037/emo0000665

Stellar, J. E., Bai, Y., Anderson, C. L., Gordon, A., McNeil, G. D., Peng, K., & Keltner, D. (2024). Culture and awe: Understanding awe as a mixed emotion. *Affective Science, 5*(2), 160-170. https://doi.org/10.1007/s42761-024-00243-3

Stellar, J. E., Gordon, A. M., Piff, P. K., Cordaro, D., Anderson, C. L., Bai, Y., Maruskin, L. A., & Keltner, D. (2017). Self-transcendent emotions and their social functions: Compassion, gratitude, and awe bind us to others through prosociality. *Emotion Review, 9*(3), 200-207. https://doi.org/10.1177/1754073916684557

Sturm, V. E., Datta, S., Roy, A. R., Sible, I. J., Kosik, E. L., Veziris, C. R., ... & Keltner, D. (2022). Big smile, small self: Awe walks promote prosocial positive emotions in older adults. *Emotion, 22*(5), 1044-1058. https://doi.org/10.1037/emo0000876

Tokaji, A. (2003). Research for determinant factors and features of emotional responses of "kandoh" (the state of being emotionally moved). *Japanese Psychological Research, 45*(4), 235-249. https://doi.org/10.1111/1468-5884.00226

Tyson, C., Hornsey, M. J., & Barlow, F. K. (2022). What does it mean to feel small? Three dimensions of the small self. *Self and Identity, 21*(4), 387-405. https://doi.org/10.1080/15298868.2021.1921018

Uhrig, M. K., Trautmann, N., Baumgärtner, U., Treede, R. D., Henrich, F., Hiller, W., & Marschall, S. (2016). Emotion elicitation: A comparison of pictures and films. *Frontiers in Psychology, 7*, Article 180. https://doi.org/10.3389/fpsyg.2016.00180

Van Cappellen, P., & Rime, B. (2013). Positive emotions and self-transcendence. In V. Saroglou (Ed.), *Religion, personality, and social behavior* (pp. 123-145). Psychology Press.

Weber, M. (1978).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G. Roth & C. Wittich (Eds.). (Based on 4th German edition, various translator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Weger, U., & Wagemann, J. (2021). Towards a conceptual clarification of awe and wonder: A first person phenomenological enquiry. *Current Psychology, 40*(3), 1386-1401. https://doi.org/10.1007/s12144-018-0057-7

Yaden, D. B., Kaufman, S. B., Hyde, E., Chirico, A., Gaggioli, A., Zhang, J. W., & Keltner, D. (2019). The development of the Awe Experience Scale (AWE-S): A multifactorial measure for a complex emotion.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4*(4), 474-488. https://doi.org/10.1080/17439760.2018.1484940

Yang, Y., Yang, Z., Bao, T., Liu, Y., & Passmore, H. A. (2016). Elicited awe decreases aggression. *Journal of Pacific Rim Psychology, 10*. https://doi.org/10.1017/prp.2016

Yasuda, S., Shoda, H., Uemiya, A., & Isaka, T. (2022). A review of psychological research on kando as an inclusive concept of moving experiences. *Frontiers in Psychology, 13*, Article 974220. https://doi.org/10.3389/fpsyg.2022.974220

Zupan, B., & Babbage, D. R. (2017). Film clips and narrative text as subjective emotion elicitation

techniqu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7* (2), 194-210.
https://doi.org/10.1080/00224545.2016.1208138

1 차원고접수 : 2026. 01. 25.
수정원고접수 : 2026. 05. 04.
최종게재결정 : 2026. 05. 18.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26, Vol. 40, No. 3, 251-271
https://doi.org/10.21193/kjspp.2026.40.3.001

Regular Article

# How Koreans Perceive "Awe": A Comparison with Being Moved in Terms of Elicitor and Psychological Experiences

**Jeong-Eun Lee** **Hoon-Seok Choi**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ual appropriateness of *gyeong-i* as a Korean translation of awe and analyzed its elicitor and psychological features in comparison with a related emotion, *gamdong*. In Study 1, elicitors of *gyeong-i* were categorized and compared with elicitors of awe identified in Western research, and distinctive psychological features of *gyeong-i* relative to *gamdong* were identified. In Study 2, *gyeong-i* and *gamdong* were experimentally induced using video stimuli, and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a small self, a core psychological feature of awe, were tested. Results indicated that *gyeong-i* among Koreans is primarily elicited by vast natural environments and is accompanied by a sense of small self. These findings suggest that *gyeong-i* is similar to awe reported in Western literature in terms of both eliciting conditions and psychological experience. In constrast, although *gamdong* shares some features with *gyeon-i*, it is primarily experienced in interpersonal context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s well a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Awe, geyong-i, gamdong, small self*

## 부록 1: 경이, 감동 유발 사건 범주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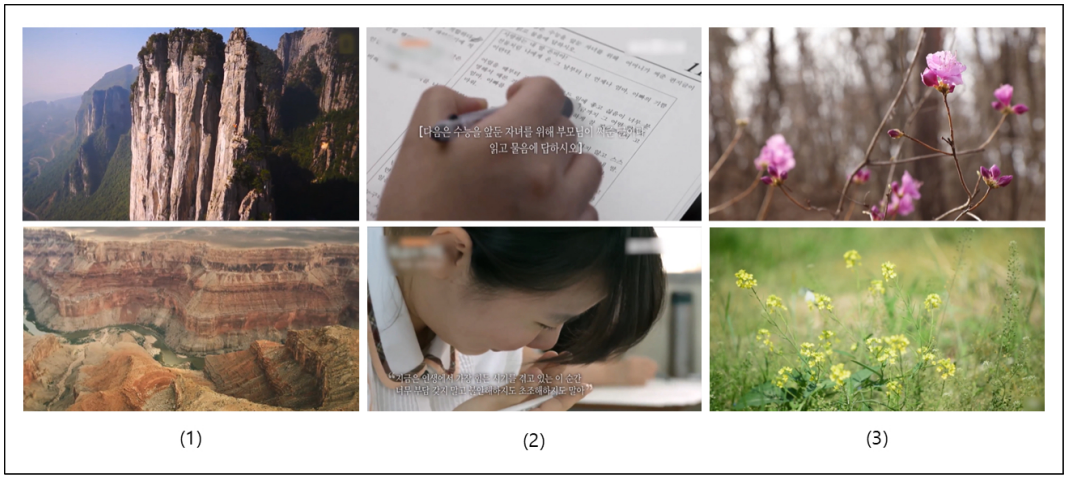
부록 1 표 1. 정서 경험 응답 범주 분류 결과

| 범주명 | 정의 | 경이 | 감동 | 비교 |
|---|---|---|---|---|
| |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잔차 |
| 자연 | 자연에 대한 감각적 경험. | 40 (23.81) | 1 (0.60) | 6.46 |
| 뛰어난 능력과 성취 | 나 또는 내가 속한 팀, 타인이 노력이나 뛰어난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내거나,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성공한 경험. | 28 (16.67) | 26 (15.66) | 0.25 |
| 생명의 신비 | 생명의 탄생이나 성장을 목격하거나 생명을 잉태, 출산한 경험. 살아 있음을 느끼게 된 경험. | 27 (16.07) | 35 (21.08) | 1.18 |
| 예술적 경험 | 뛰어난 예술 작품(음악, 미술 등)이나 결과물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 15 (8.93) | 4 (2.41) | 2.57 |
| 관계 상태 변화 및 증진 | 타인과의 관계 상태가 달라지거나(형성, 재회, 단절) 증진되는 사건을 경험. | 8 (4.76) | 12 (7.23) | 0.95 |
|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적 지지 및 선행 |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사회적 지지를 받거나, 자신이 타인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 경험.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선행을 제공한 사례를 알게 된 경험. | 6 (3.57) | 70 (42.17) | 8.41 |
| 여행 | 여행(일이나 휴식, 유람 등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떠난 경험, 여행에서의 경험. | 4 (2.38) | 5 (3.01) | 0.36 |
| 인공물 |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물이나 물체, 경관에 대한 감각적 경험. | 9 (5.36) | 1 (0.60) | 2.55 |
| 동물과의 상호작용 | 동물을 보거나, 동물에 대한 지식을 얻거나, 동물과의 감정적 물리적 교류를 경험.<br>동물 간의 감정적, 물리적 교류에 대한 사례를 들은 경험. | 3 (1.79) | 5 (3.01) | 0.73 |
| 우연 | 인과 관계 없이 드문 확률로 뜻하지 않게 발생한 일에 대한 경험. | 5 (2.98) | 0 (0.00) | 2.24 |
| 과학기술 | 과학 기술/기계를 다루거나, 과학 지식 혹은 과학 발전에 대한 사례를 알게 된 경험. | 1 (0.60) | 0 (0.00) | 1.00 |
| 국위선양 | 국가의 위상을 높인 사례, 국가를 긍정적으로 널리 알린 사례.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인 사례. | 2 (1.19) | 2 (1.20) | 0.01 |
| 집단행동 | 여러 사람이 같은 목표를 갖고 행동하는 것을 보거나 행동에 참여한 경험, 군중을 목격한 경험. | 5 (2.98) | 2 (1.20) | 1.13 |
| 새로운 경험 | 인생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경험함. | 1 (0.60) | 1 (0.60) | 0.01 |
| 종교적, 영적 경험 | 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 혹은 영적 사건을 경험. | 2 (1.19) | 0 (0.00) | 1.41 |
| 건강(질병 치료/회복 경험) | 자신 혹은 나와 가까운 사람의 질병 경험. 나 또는 타인이 성공적인 수술이나 치료를 통해 질병으로부터 호전된 경험. | 2 (1.19) | 0 (0.00) | 1.41 |
| 기타 | – | 10 (5.95) | 2 (1.20) | - |

주. $N = 334$. 잔차는 절댓값으로 표기하였음.

## 부록 2: 경이, 감동, 통제 영상 자극

부록 2 그림 2. 연구 2경이, 감동, 통제 영상 자극




주. (1)은 경이 조건, (2)는 감동 조건, (3)은 통제 조건에서 사용한 영상의 일부임.